

포유동물유체로 본 영남지방 중심지의 동물이용의 현황과 양상

김헌석¹

¹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Animal Exploitation Pattern in Central Places Located in Yeongnam Province Based on Archaeozoological Analysis

HunSuk Kim¹

¹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 As three-kingdom period ancient tombs were located in the central place of those days,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shellmiddens and wetlands around ancient tombs could illustrate how hierarchy exploited the animal resources. For this purpose, five archaeological sites were selected and archaeozo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Five species including deer, boar, cattle, horse and dog were commonly found with the small number of wild species in each site.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animal species, deer comprise more than 50 per cent of fauna from Pusan and Gimhae of Gaya confederacy while the number of domesticates such as horse and cattle is small. On the other hands, the peculiarity of animal remains of Gyeongju and Gyeonsan, belong to Silla dynasty, is the low proportion of deer and boar. This feature could b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entral places as other regions such as Pungnaposeong Fortress and Mongchontoseong Fortress show a similar tendency. Furthermore, as the category of boar includes domestic pig, the percentage of domesticates usage could be even higher. A part from the use of domesticated animals, cat and sea lion were found as well. As the cat is frequently discovered around the royal palace of Silla, it is worth to study how the cat was imported to the Korean Peninsula. Also, although sealion which is already extinct is often found around Pusan, archaeological evidence of exploitation practice is insufficient. However, considering the cutmarks on bone surfaces, it could be extrapolated that sealion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resources.

Keywords : Three Kingdom period, Animal remains, Domesticates usage, Central place

서론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rch 10, 2020; **Revised:** June 2, 2020; **Accepted:** June 4, 2020

Correspondence to: 김헌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E-mail: cj00700@korea.kr

한반도에서 동물유체가 출토하는 유적의 수는 많지 않다. 다량의 동물유체(Animal Remains)가 출토하는 유적은 주로 패총과 저습지이며 고분에서는 중심부분에서 장송의례(Burial Ritual)의 일부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고분에서 출토하는 동물유체는 장송의례의 모습과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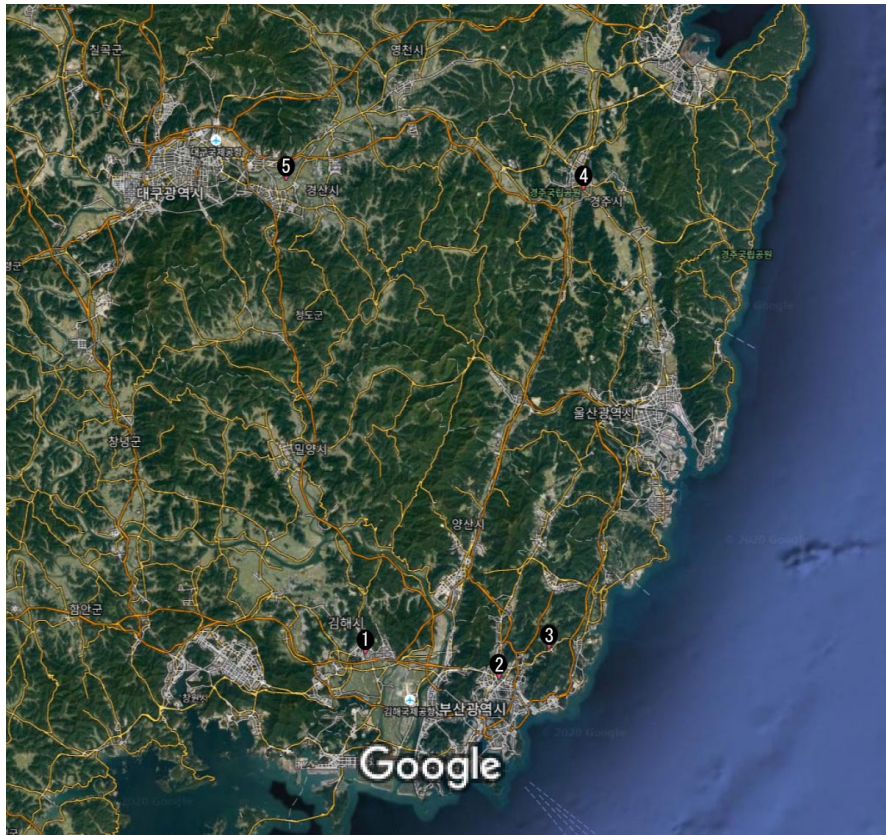


Fig. 1. The location of study sites plotted on google map. 1. Heohyeonri, 2. Nangmin-dong 100 (Dongnae-shell mound), 3. Go-chon, 4. Wol-seong, 5. Yimdang-dong.

사람들이 가진 동물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패총과 저습지유적에서 출토하는 것은 다양한 성격의 동물유체가 섞여 있는 경우이다.

동물유체를 통한 연구는 선사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1-3], 삼국시대 동물유체를 통한 생업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4]. 동물유체를 이용해 삼국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출토하는 동물유체에 대한 기본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삼국시대 고분이 위치하는 지역은 각 정치체 (Political Body)의 중심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 형성된 패총과 저습지는 당시 사람들이 이용한 동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유체를 통해서 고대인의 식생활을 비롯해 도구제작, 주변 환경 등의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는 당시의 사람들이 동물자원을 어떻게 획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영남지방의 신라영역으로 생각되고 있는 고분과 저습지 혹은 패총이 공존하는 유적을 5개소 선정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출토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포유동물

을 중심으로 사용한 동물의 종, 이용 양상을 정리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논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삼국시대 사람들이 이용한 동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패총과 저습지에서 출토하는 동물유체이다. 선정된 유적들은 가야와 신라라는 정치체 집단으로 발전되는 지역이다 (Fig. 1). 그리고 고분이 위치하는 지역은 당시 정치체의 중심지로 당시에 이용가능한 자원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분 주위에 형성된 패총은 고분을 조성한 집단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기에 당시에 이용한 동물자원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선정된 유적들은 왕궁 혹은 중요 주거지가 고분과 함께 확인되어 당시의 생활과 관련한 동물유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 신라 사회 속의 동물이용 양상을 알려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Table 1. The list of study sites (No. of Fig. 1 and Table 1. is same)

No.	Site	Type	Age
1	Heohyeonri	Shell mound	B.C 0 - A.D 3C
2	Nangmin-dong 100	Shell mound Wet land	A.D 3C latter half - in the early A.D 4C
3	Go-chon	Wet land	A.D 3C middle - A.D 5C
4	Wolseong	Wet land	A.D 5C- A.D 6C latter half
5	Yimdang-dong	Wet land	A.D 3C- A.D6C



Fig. 2. The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Wolseong site(1: Canis sp. and Cervus sp., 2: Zalopus sp.).

재료가 되는 동물유체는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것을 바탕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동물유체가 중심이다. 대부분의 발굴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동물유체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습되고 있다. 회현리패총과 낙민동 100번지 유적의 경우는 체질을 통해서 뼈를 선별했고, 월성유적의 경우도 현재 체질을 진행하는 중이다. 고촌유적과 임당동유적은 현장에서 수습 가능한 뼈를 대상으로 동물유체 전공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본고의 기본적인 출토종과 양상 파악의 재료로 삼고자 한다.

1. 경주 월성유적

경주 월성유적은 신라의 왕성유적으로 알려져 있다[5]. 1980년대 동부사적지대의 유적 분포조사를 통해서 월성해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후 트랜치를 통해서 해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해자가 존재한 것을 확인했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해자 퇴적층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져 내부의 동

물식물유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1호해자에 대해서 기반층까지 전면적인 평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자의 하부층인 펄층에서 다수의 동물유체 및 목재, 씨앗 등의 유기질 유물이 출토하고 있다.

해자의 조성시기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출토하는 토기의 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해서 5세기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으면 동물유체의 연대로 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의 출토 동물유체는 현재 정리 중에 있는 자료이다. 상세 양상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간략한 종별 출토양상이 보고되어 있다. 보고의 중심은 2015년부터 조사된 1호해자에서 출토한 동물유체(Fig. 2)가 대상이다.

2. 김해 회현리패총

김해 회현리패총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김해패총이 사



Fig. 3. The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Heohyeonri site(1: Bos and Equos, 2-3: Cervus sp. 4: Sus sp.).

적으로 지적된 명칭이다[6-8]. 회현리패총은 주변의 봉황대 유적의 주거지와 대성동고분군의 고분군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봉황대유적이 구릉지 위에 위치하고 이 사면의 하단부에 패총이 형성되어져 있다. 패총이 형성될 당시는 고김해만이 형성되어 패총 근처까지 바다가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시기는 토기에 의해서 기원전후에서 3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 의해서도 동일한 시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동물유체 보고는 2차례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이 보고된 삼강문화재연구원의 자료(Fig. 3)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부산 동래패총

부산의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패총이다[9-11]. 패총이 형성될 당시는 패총의 근처로 바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의 안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패총을 형성한 집단은 복천동고분군을 만든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4. The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Nakmin-dong 100 site(1: Bos, 2: Sus sp., 3: Cervus sp., 4: Zalophus sp.).

사적으로 지정된 동래패총부분은 토기를 통해 기원후 3세기 후반 무렵에 중점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주변에 4세기에서 5세기로 추정되는 패총 및 저습지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패총과 저습지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주변에서는 3차례의 동물유체가 보고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보고된 것이 최근의 낙민동100번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4곳의 패총부분이 존재했고 여기에서 출토한 유물(Fig. 4)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Fig. 5. The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Go-chon site[13](1: Cervus sp., 2: Sus sp., 3: Bos, 4: Zalophus sp.).

4. 부산 고촌유적

수영강변에 위치한 유적이다[12]. 낮은 구릉의 말단부에 저습지가 있고 그 속에서 동물유체(Fig. 5)를 비롯해 목기, 미완성 목제품, 칠기 등의 유물이 출토했다. 미완성의 목제품 및 골각기 등이 다수 출토하고 다수의 소성(燒成)유구가 보이는 점에서 생산집단의 마을로 추정된다.

구릉 사면과 주변에서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어 삼국시대의 마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습지에서 출토하는 유물은 4세기에서 5세가 중심이고 3세기 무렵의 유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적에서 출토한 목주의 별채연대를 추정한 결과도 A.D 225년의 결과가 얻어져 3세기부터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The list of species identified from each site

Site	Heohyeonri	Nangmin-dong 100	Go-chon	Wolseong	Yimdang-dong
<i>Cervus nippon</i>	○	○	○	○	○
<i>Sus scrofa</i>	○	○	○	○	○
<i>Bos taurus</i>	○	○	○	○	○
<i>Equus caballus</i>	○	○	○	○	○
<i>Zalophus sp.</i>	○	○	○	○	○
<i>Canis familiaris</i>	○	○	○	○	○
<i>Capreolus or Hydropotes</i>	○	○		○	○
<i>Vulpes vulpes peculicosa</i>			○		○
<i>Nyctereutes Procyonoides</i>	○				
<i>Cetacea</i>	○	○	○	○	
<i>Felis catus</i>	○				
<i>Mustela sibirica coreana</i>		○			
<i>Meles meles melanogeny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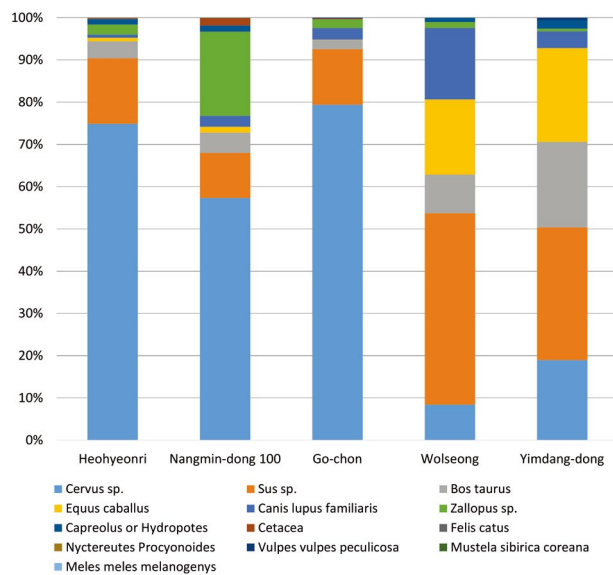


Fig. 6. The proportion of animal species excavated from each sit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identified elements. The line graph indicates the percentage of the sum of deer and boar and that of domesticates including cattle, horse and dog excavated from each site. According to the graph, each site shows noticeable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domesticated animals, wild animals and other species.

5. 임당 저습지유적

금호강의 지류가 모이면서 형성된 평야의 구릉부에 임당, 부적리, 조영동의 3개의 고분군이 존재한다[14]. 대형의 고분군이 존재하는 지역의 서쪽과 북서쪽에서 다양한 취락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 사이에 저습지가 형성되었

다. 저습지 속에서는 목제갑옷틀, 목기, 칠기, 목제품, 철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양상으로 전문적인 수공업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습지는 기원후 3세기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기원후 6세기까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 과

삼국시대에 이용한 동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유적에서 출토한 동물종을 모은 것인 Table 2에서 확인가능하다.

결과에 이용된 종명의 확인은 각 보고서에 수록된 동물유체에 대한 보고문을 기본으로 작성되었고 그중 낙민동, 월성은 필자가 보고한 유적이고 고촌은 출토한 동물유체에 대해서 전량 확인한 유적이다. 보고문의 내용과 함께 필자가 실견한 부분을 포함해 내용을 정리했다. 회현리는 유물의 정리 과정에 참가해 다수의 유체를 확인했으나 본고에서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집성했다. 그리고 임당동은 보고문과 제시된 사진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판단해 종명을 확인했다.

그리고 각 종이 사용된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정된 파편수를 확인했다. 유적 간의 비교에서 동물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는 것은 최소개체수(Minimum number of individuals)와 동정가능표본수(Number of Identified Specimens)이다. 이 중 최소개체수는 일정수량 이상의 개체가 나오지 않으면 동물개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각 종의 이용 비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동정가능표본수를 이용했다. 동정가능표본수는 실제로 종의 동정이

가능한 부위가 보고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문의 기재수량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먼저 삼국시대에 사용된 종을 보면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는 종들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이용되는 사슴, 멧돼지, 여우, 너구리, 족제비와 같은 야생동물과 함께 소, 말, 개의 가축종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출토종의 구성은 각 유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유적에서는 사슴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현리유적과 고촌유적은 사슴의 비율이 70% 이상, 낙민동유적은 60% 정도로 사슴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월성유적과 임당동유적은 사슴의 비중이 적고 상대적으로 멧돼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낙민동유적에서는 강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유적에서도 강치는 확인되고 있으나 그 비율은 10% 미만의 소수이다. 이에 반해 낙민동유적에선 30%에 이르는 다수가 확인되면 사슴과 함께 주요 이용종으로 확인된다.

각 유적에서 이용되는 동물종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동물을 각 집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슴이 각 유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동물 이용 양상이 차이가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 찰

각 유적에서 출토하는 동물종을 종합해 보면 삼국시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적별로 이용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동물 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축의 사육 혹은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상 유적의 성격 즉 당시 사람들의 이용방식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종의 이용 비율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각 유적에서 출토하고 있는 동물종은 크게 야생동물과 가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야생동물은 사슴, 멧돼지, 강치, 여우, 노루, 고래, 족제비, 오소리이고 가축은 소, 개, 말이 속한다. 동정가능표본수로 본 결과를 통해 보면 야생동물 중에서는 사슴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이용자원인 것은 확실하다. 이에 반해 다른 야생동물들은 그 수량이 적은 점에서 부가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슴이라는 종의 용도는 고기의 공급이라는 측면 이 외

에도 도구의 재료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사슴 뼈는 신석기시대부터 다양한 도구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골각유물 중에도 사슴뼈를 이용한 것이 많은 점에서 육류의 공급과 도구 제작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적으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사슴의 비중이 높은 회현리유적과 고촌유적은 공방과 관련된 유물이 많이 확인되었다. 회현리유적은 인접한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하는 유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속품이 발견되는 점에서 공방이 주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의 사슴뼈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촌유적의 경우는 칠기 및 불에 탄 수혈 등이 다수 확인되고 목기를 만들기 위한 목제의 수침저장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에서 있는 점에서 전문적인 공방마을로 추정된다. 낙민동 유적의 경우도 사슴의 비중이 높은 점과 함께 사슴뼈를 이용한 도구 제작 과정에서 폐기된 유물을 통해 공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15]. 3유적은 공통적으로 동물이용에서 사슴의 이용비중이 높다는 점과 함께 주변에 공방지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슴의 육류의 공급 이 외에도 도구의 재료로 사용되는 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 유적의 보고서에 기재된 골각유물을 살펴보면 사슴뼈를 이용해 만든 도구가 많다. 고촌유적의 경우 사슴뼈만 주워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에서 전문적인 공방마을 속의 사슴은 육류의 이용보다는 도구 재료의 공급이라는 측면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사슴의 이용에 관해서는 출토하는 양상과 함께 유적의 성격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임당동유적도 공방마을로 추정되고 있으나 사슴의 비율이 높지 않고 소와 말의 비율이 높은 점은 다른 3개의 유적과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재료로 사용하는 동물종의 차이 혹은 생산하는 제품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소와 말의 뼈를 이용한 도구의 보고가 거의 없는 점에서 뼈 자체가 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은 적다. 아마도 소와 말의 다른 부위를 이용한 도구의 생산이 생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출토하는 유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슴이라는 야생동물의 이용에서 유적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월성유적의 경우는 다른 4유적 모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슴류(사슴과 노루, 고라니와 같은 소형사슴을 포함한 통칭)의 출토가 거의 없고, 멧돼지, 소, 말, 개의 비중이 높은 점은 다른 유적과는 다른 동물 이용을 보여준다.

월성유적에서 멧돼지의 존재가 많은 것은 다른 유적과 차별된 점이다. 특히 집돼지 사육의 가능성이 높은 삼국시

대 유적에서 집돼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당시 생활에서 육류의 소비 및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유적에서 출토한 멧돼지 유체를 이용해 집돼지와 멧돼지를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구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16,17]. 연구들은 모두 유적에서 출토하는 이빨의 크기와 가축화로 인한 식성의 변화에 주목해 양자를 구분했다. 그리고 사육 목적에서 의례를 위한 특수 목적의 사육[17]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낙민동 유적을 포함하는 이전 동래패총 출토 멧돼지의 대부분은 집돼지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16], 영남지방 삼국시대의 멧돼지의 상당수는 집돼지일 가능성이 높다.

집돼지 사육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한다면 월성 속의 멧돼지는 사육종인 집돼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성에서는 어린 개체의 집돼지가 많다는 점은 집돼지 사육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집돼지와 멧돼지의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제2, 3대구치의 크기가 보이지 않은 어린 개체가 월성에 많지 않기에 다른 유적 속에서 이용 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월성유적과 유사한 시기인 삼국시대 4-5세기의 유적인 동래패총과 고촌유적의 집돼지와 멧돼지의 비율이 4:1, 1:1이라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16,18], 월성유적의 멧돼지는 적어도 절반은 집돼지일 가능성이 높다. 즉 월성유적 속의 집돼지, 소, 말, 개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안정적으로 가축이 이용될 수 있는 사회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또한 다른 유적에 비해 소와 말의 이용이 높은 점은 신라의 왕경이라는 정치적 위상과도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국시대의 왕궁지의 발굴조사 성과는 많지 않아 신라 왕궁의 특징인지 왕궁의 일반적인 특징이 소와 말의 이용 비중이 높은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보고된 백제의 왕궁과 근접한 중심지에서 출토된 동물유체에서 가축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유적에서도 경향성은 보이고 있다[19,20].

가축의 비율이 높은 유적이 삼국시대에 국가로 발전되는 지역의 중심지이자 수도라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상의 변화로 가축의 소비지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유체의 분석과 고고학적 정황을 함께 추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소, 말, 개와 같은 가축종의 이용 양상과 달리 동물종 중에서 연구가 필요한 종들도 보인다. 고양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한반도에 고양이가 애완동물 혹은 인간과 함께 했는지 그 유입에 대한 경로의 문제이다. 고양이의

출토양상을 보면 회현리유적에서 확인되었고 집고양이로 추정된다[21]. 그리고 의성 대리리 고분군[22], 경주박물관 부지 우물[23], 경주 인용사지 원지[24] 등에서 확인되는 등 출토사례가 늘고 있다.

고양이는 별다른 해체흔(cut mark)이 보이지 않는 다는 동물유체 보고자의 의견[21-24]을 종합해 보면 식용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고양이가 지역 중심지에서만 나오고 있는 점은 귀족층의 애완동물 혹은 전유물처럼 애용되었을 것이다. 아직 한반도에 집고양이가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발굴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비교 등이 필요하다.

강치의 경우는 현재는 멸종한 상태의 종이다. 유적에서 출토한 강치의 유체에 다양한 도구흔적이 남아있는 점에서 유적 내부에서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Fig. 5-4의 화살표). 그리고 주요 서식지는 낙민동유적 주변으로 생각된다. 동삼동패총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패총유적에서는 강치가 지속적으로 출토하고 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대상 유적들에서 강치의 유체가 나오는 것은 강치를 빼와 함께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했을 것이다. 빼와 함께 가져와 이용한 것은 가죽 혹은 기름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고고학 증거로 남은 것이 없어 추정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용목적 이외에도 출토양상과 출토지점의 축적을 통해서 강치의 회유경로 등에 대한 생태정보의 추정을 통해 당시 강치 생태의 복원의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남지방이 주요 고분군에 인접한 패총 및 저습지에서 출토한 포유동물을 살펴보았다.

유적에서 확인된 종들은 대부분의 유적이 유사하다. 사슴의 이용비중과 가축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상으로 한 유적 이외에도 풍납토성 및 몽촌토성과 같은 백제의 중심지에서도 가축의 비중이 높은 양상이 나타나는 점은 향후 가축 사육과 소비의 관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중심지에 위치함에도 사슴의 비중이 높은 점은 공방지가 중심지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수공업집단을 중심지의 외곽에도 만드는 것을 고려하면 물자 생산의 분업화의 일면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동물유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주변에 위치하는 유적 및 유물과 함께 당시의 정치체의 성장과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고고학에서의 동물유체는 단순히 선사와 고대에 이용된 식량자원을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물유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지속적인 자료축

적을 통해 인간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한 모습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 사

본 논문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인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의 성과물 중 일부입니다.

REFERENCES

1. Lee E. A Study on Livelihood Activ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Neolithic Age : Focused on faunal remains excavated from shell mounds.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2010. Korean.
2. Kim EY. Subsistence-Settlement System in Neolithic Period of Korea: The Analysis of Faunal Remains from Shell Middens of Yeonpyoung Island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Korean.
3. Go EB. A Study on Subsistence Economy of the Jeomtoda Pottery Culture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Korean.
4. Jeong CW. A Study on Animal Remains in the Iron Age : Focused on Southern Coasts of Gyeongnam.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2011. Korean.
5. Kim HS, Lee SY. The Present Status and Tasks of Animal bones Excavated from Wolseong. In: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 of Cultural Heritage. The research of paleo-environment reconstruction at Wolseong. 2018. pp. 170-88. Korean.
6.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Gimhae Heohyeonri shell mound. 2008. pp. 155-203. Korean.
7. Samgang Ins. of Cultural Heritage. Hoehyeon-ri shell mound in Gimhae. 2009. pp. 209-46. Korean.
8. Gimhae National Museum. Hoehyeon-ri shell mound in Gimhae. 2013. pp. 161-80. Korean.
9. Bokcheon Museum. The site and remains of Sanmhan period in Busan - Dongrae shell mound -. 1997. pp. 230-39. Korean.
10.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ongnae Nagmindong shell mound. 2004. pp. 245-84. Korean.
11. Gyeong-s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Nangmin-dong 100 site, Busan. 2018. pp. 533-56. Korean.
12. Foundation of East-Asia Cultural Properties Ins.. Cultural remains excavation report within Busan Gochonland development project section(section 2). 2010. Korean.
13. Jeonggwang Museum. Ancient Animal Bones in Busan. 2017. pp. 56-79. Korean.
14. The Yeongnam Ins. of Cultural Properties. The Ancient Habitation site at Yimdang-dong. Gyeongsan. 2008. pp. 633-701. Korean.
15. Cho TS. A Study of bone tool fabrication method with the Nakmin-dong remains on the Iron Age. Kogo-hak. 2013; 12:2:119-41. Korean.
16. KIM HS. The Beginning of Pig Domestication and the Use of Domesticated Pigs in the Youngnam Region Based on Stable Isotope Analysis. Hanguk Kogo-Hakbo. 2012;84:4-29. Korean.
17. Lee JJ. Domesticated pig in Korea: its socioeconomic and symbolic context. Hanguk Kogo-Hakbo. 2011;79:131-74. Korean.
18. KIM HS. The diet and breeding system of Dongnae people by isotope analysis at Korea. Gogo-goangjang. 2015;23:33-49. Korean.
19. Kim GS, Yang NR. The research of animal remains excavated from Kyungdang section of Pungnab Earthen Wall.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of Hansin University. Pungnab Earthen WallVI. 2005. pp. 143-56. Korean.
20. Go EB, Lee JJ. The analysis of animal Bone. In: The Baekje Culture Foundation. The site of 319 street of Guari in Buyeo. 2012. pp. 233-52. Korean
21. Matui A, Maruyama MS, Kikuchi HK, Nagai RE. Vertebrata remains excavated from Hoehyeon-ri shell mound in Gimhae. In:Samgang Ins. of Cultural Heritage. Hoehyeon-ri shell mound in Gimhae. 2009. pp. 209-46. Korean.
22. SungLim Ins. of Cultural Properties. The Ancient site at Daeri-ri, Uiseong. 2016. pp. 249-53. Korean.
23. Gyeongju National Museum. Animals in a well of Unified Silla. 2011. pp. 30-39. Korean.
24.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 of Cultural Heritage. In-yongsaji Site II. 2013. pp. 16-39. Korean.

간추림 : 삼국시대의 고분이 존재하는 곳은 당시의 중심지이다. 고분에 인접한 곳의 패총과 저습지에 출토하는 동물 유체를 통해 당시 지배층이 이용한 동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유적을 선정해 출토종과 그 양상을 확인했다. 각 유적에서는 사슴, 멧돼지, 소, 말, 개의 5종이 공통적이고 소수의 야생동물이 확인된다. 그리고 각 종의 비율을 보면 부산과 김해(가야지역)의 유적에서는 사슴의 비율이 50%를 넘고 소, 말 등의 가축비율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반면, 경주와 경산지역(신라지역)에서는 사슴 및 멧돼지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런 특징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점에서 중심지의 성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멧돼지 속에도 집돼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가축 이용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축 이용 외에도 고양이와 강치가 확인된다. 고양이는 통일신라시대 신라의 왕궁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점에서 어떠한 경로로 한반도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멸종한 강치도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고고학적으로 이용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뼈에 다수의 해체흔이 있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찾아보기 낱말 : 삼국시대, 가축이용, 중심지, 동물유체